

IV. 정책적 시사점

-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314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해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임.

-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고유부문(대출 등)과 신탁부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신탁자산이 고유부문과 명백히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예: 은행의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한 자행예금 운용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거래기업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모순 차단 필요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가 필요함
 - 금융기관의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 금지조항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업자책무에 포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 명시

 - 대출만기 연장, 회사채 할인, 특별금리 제공 등 불건전 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금융기관 자체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별도 의무화

□ 둘째,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노력과 감독당국 차원의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임.

○ 충분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입기업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세 전환이 긴급

○ 사후관리서비스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차원의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불만해소 방안을 모색

특히 연금계리, 재정건전성 검증 등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관련규정 강화를 적극 검토

□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수급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된다는 점임.

○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관련 세제의 지원 확대 필요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적용확대,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장치 강화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에 적용되는 현행 “3년 퇴직금”에서 “5년 이상 퇴직금”으로 확대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범위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대폭 증대 필요

실질적인 수급권보호 장치 마련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급부공사(PBGC)와 같은 별도의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필요

□ 넷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상품선택 및 사업자 선정 고려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임.

○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상품선택 시 원리금보장가능성, 안정적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중심의 운용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 존재

기업별 상품선택 시 최우선 고려요인(대기업: 높은 수익률, 중기업: 원리금보장가능성, 소기업: 안정적인 장기수익률) 등으로 고려한 운용 전략 모색 필요

○ 건전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기초한 자산운용 능력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 확보 필요

그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능력(50%), 재무건전성(24.8%), 전문성(14.0%) 등을 주요 선정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의지와 제도개선, 사후관리서비스의 제공충실, 기업니즈에 기초한 운용전략 전환이 중요시됨.

저 자 약 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이 상 우

일본 中央大學 상학 석사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swlee@kiri.or.kr)

CEO Report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발 행 일	2009년 10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3775-9013)로 하여 주십시오.